



우리나라 최초로 지전설 제창한 학자

김석문(金錫文)(1658~1735년)

朴星來 (한국의국어대 사학과 교수/파학사)

조선 후기의 학자 가운데 지전설(地轉說)을 주장하여 이름을 남긴 인물로는 흔히 홍대용(洪大容, 1731~1783년)을 든다. 하지만 그 보다 훨씬 전에 이미 비슷한 지전설을 말한 학자에 김석문(金錫文, 1658~1735년)이 있다. 그는 분명히 지전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가 그런 주장을 내놓은 것은 1697년(숙종 23) 완성한 「역학도해(易學圖解)」라는 6권으로 된 책에서였다. 그러면 김석문이 먼저 지전설을 내놓았다면, 왜 홍대용이 처음 지전설을 주장한 것처럼 널리 알려졌던 것일까? 또 그들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서로 독립적으로 그런 주장을 내놓았던 것인가? 또 그들의 생각은 얼마나 비슷하고, 또는 서로 다른가?—

1697년 완성한 「易學圖解」에 기록

김석문의 일생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관이 청풍(淸風)으로 자(字)를 병여(炳如)라 했으며, 호는 대곡(大谷)이다. 경기도 포천 출신으로 벼슬은 그리 하지 못했으나, 마지막으로 통천(通川) 군수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통천이라면 지금은 북쪽 땅이 되어 있는 강원도의 북쪽 바닷가의 지명이고, 바로 유명한 '관동 팔경'(關東八景)의 하나인 총석정(叢

石亭)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원래 그의 나이 40에 써놓은 그의 책은 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바로 그가 통천 군수로 있을 때인 1726년 8월 69세 때에 처음 책으로 인쇄되어 지금 전해지고 있다. 북한산(北漢山)의 승각(僧刻) 2명을 통천에 초빙하여 책판을 새기게 하여 인쇄가 가능했다는 기록이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아주 얇은 책으로 「역학 24도해(易學二十四圖解)」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주역(周易)」의 이치를 설명하는 책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제목이다. 바로 이런 제목 때문에 그 속에 담긴 지전설은 더욱 주목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글쓴 투로 보아 지전설을 내세우려 강조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기에 더욱 열성이어서 당연히 지구가 하루 한번씩 자전하여 낮과 밤이 생긴다는 설명은 비교적 간단하다. 그 대신 태극(太極)이 움직여 음양(陰陽)을 낳고 그것이 다시 사시(四時)를 낳아서, 세상의 만물을 생기게 하는 이치를 아주 자세하게 그림그려 설명하고 있다. 또 일정한 시기를 주기로 인류 역사와 문명, 자연현상이 흥망성쇠를 되풀이한다는 순환론적 역사철학을 주장하였다. 이같은 주장은 전성기에 있는 중국이 언제까지나 홀로 번영을 누릴 수

없으며, 현재의 약소국이 미래의 대국이 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생각도 밑에 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런 「주역(周易)」의 논리를 연장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행성과 해와 달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또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설명한다. 당연히 지구, 달, 해가 서로 만나고 겹쳐 일어나는 일식이나 월식에 대해서도 그림까지 그려 설명하고 있다. 아마 일식과 월식을 그림으로 설명하기는 그가 우리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의 지전설에 의하면 태양의 둘레를 선회하는 별들이 모두 제각기 궤도를 따라 선회할 뿐만 아니라 지구도 남북극을 축으로 하여 제자리에서 1년에 3백66회전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저 멀리 떨어진 하늘 끝에서부터 행성들과 달까지 아홉겹 하늘(九重天)은 지구에 가까울수록 빠르게 돌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결국 지구도 하루 한번씩 자전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그는 지구의 자전만 주장했지,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고는 말하지 않은 것이다. 즉 공전설은 주장한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은 그 후 홍대용이 말한 것과 똑같다. 또 이런 주장을 하고 또 그림을 그린 것은 분명



우리나라 최초로 지전설(地轉說)을 제창한 학자는 김석문(金錫文, 1658~1735년)이다. 조선조 후기 홍대용(洪大容, 1731~1783년)도 지전설을 주장했지만 이보다 앞선 1697년에 완성한 「역학도해(易學圖解)」라는 책에서 밝혀졌다. 김석문은 큰 벼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뒤늦게 동천군수를 지내면서 69세 때 이 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지구·달·해가 서로 만나고 겹쳐 일어나는 일식이나 월식도 그림까지 그려 설명했고 지구도 남북극을 축으로 하여 제자리에서 1년에 3백66회전한다고 주장했다.

히 당시 중국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이 소개한 서양 천문학 지식을 잘 알고 소개한 것이어서, 이 부분은 그의 독창적 생각이 아닌 것도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런 점에서는 홍대용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중국에서 책으로 나와있던 서양 천문학 책—그 가운데 특히 당시 청나라에서 활약하던 서양 신부 나아곡(羅雅谷, 본명 Jacques Rho)의 「오위역지(五緯曆志)」를 보고 그런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지구가 자전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모두 전하고 다만 지구가 자전하기 보다는 하늘이 지구 둘레를 돈다고 반대 방향으로 주장을 펼쳤던 것이다. 그런 서양 선교사의 책을 보고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분만을 지구가 하루 한번씩 돈다고 서양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말하고 나선 셈이었다.

연암의 「열하일기」에도 소개

유명한 실학자—그 중에서도 북학자(北學者)로 여겨지는—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년)의 「열하일기(熱河日記)」 ‘곡정필담(鶴汀筆談)’에는 김석문의 ‘태양·지구·달은 둥글고 공중에 떠 있다’는 ‘삼대환공부설’(三大丸空浮說)을 소개하고 있는데, 떠있는 세 천체가 돌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 박지원은 1780년(정조

4) 친족 형인 박명원(朴明源)이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청나라에 갈 때 따라 이용후생(利用厚生)에 도움되는 청나라의 실제적인 생활과 기술을 눈여겨 보고 귀국, 기행문 「열하일기(熱河日記)」를 남겼다. 그는 이 책에서 청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걸친 비판과 개혁도 말했다. 이 글 가운데 김석문의 ‘삼대환공부설’이 들어있는 것이다. 3대환이란 세계의 큰 고리 또는 공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물론 태양, 달, 지구 셋을 가리킨다. 이들 세 가지 천체가 하늘에 둥둥 떠서 돌고 있다는 말로 이미 지전설을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박지원은 우리 역사에서 주로 문필가로 유명하여, 그가 쓴 소설 「호질(虎叱)」과 「양반전(兩班傳)」은 특히 유명하다.

그런데 박지원은 이 기행문에서 홍대용의 지전설을 잘 소개하고, 김석문을 지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다. 왜 그는 두 사람의 글을 다 읽고 홍대용의 지전설은 높이 평가하여 소개하면서 김석문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그저 ‘삼대환공부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던가? 아마 박지원 조차 그가 지전설을 말한 것은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183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이규경(李圭景, 1788~?년)의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적어도 두 차례 김석문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당시 편찬하려던 어느 문집에 김석문의 「역학도해」도 들어있다는 기사가 그 하나이며, 옛날의 여러 가지 지전설에 대해 소개하면서 「역학도설(易學圖說)」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책이 대곡(大谷) 성운(成運 1497~1579년)의 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규경이 실수하여 김석문의 책을 성운의 것으로 잘못 말한 것 같다.

아직 이 부분은 확실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운 역시 역학에 대해 연구하고 또 책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규장각에는 지금 활자본 「성대곡역해도(成大谷易解圖)」란 것이 남아 있다. 아직 내가 직접 조사하지 못하여 알 수는 없지만, 내용은 태극도(太極圖)를 비롯하여 적구구천부도(赤極九天附圖)·일식도(日蝕圖)·월식도(月蝕圖)·수괘소성도(數卦少成圖)·사십팔책저상도(四十八策箸象圖) 등 그림 25장이 수록되었다. 혹시 이것이 바로 김석문의 것일지도 모른다. 홍대용만이 지전설의 주장자로 알려진 가운데 처음으로 김석문을 연구하여 지전설 주창자로 내세워 준 학자는 연세대 민영규(閔泳珪)교수였다. 그는 1975년 논문을 발표하여 이를 주장했고, 그것이 널리 알려져 지금은 김석문의 이름이 제법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㉞